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3장 두 번째 일반 원리: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죄 죽이기』 제3장 "죄를 죽이기 위한 두 번째 일반 원리: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인쇄 57~66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로마서 8:13의 "영"이 성령이라는 앞 장의 결론에서 출발해, 죄 죽이기의 결정적 원인은 오직 성령이라고 선언한다. 먼저 성령을 빼고 죄를 죽이려는 방법들이 왜 실패하는지 보여준다. 로마 가톨릭의 고행과 서약,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하는 개신교인들의 방법이 그 예다. 이어서 죄 죽이기가 성령의 일인 근거를 두 가지로 든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성령을 통해 온다는 사실이다. 그다음 성령이 죄를 죽이는 세 가지 방식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명령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성령은 우리를 빼고 일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리고 성령 없이 홀로 싸우는 영혼의 비참함을 탄식하며 장을 맺는다.

📜 절별 정리

📜 1. 죄 죽이기의 주권적 원인은 성령이다

오웬은 이 장의 원리를 처음부터 분명히 밝힌다. 죄 죽이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령이다. 강론 전체의 토대인 로마서 8:13은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말하는데, 앞 장에서 이 "영"이 성령임을 이미 증명했다. 따라서 오직 성령만이 이 일에 충분하다. 성령을 뺀 모든 방법과 수단은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대로 일하신다. 주도권이 우리 노력에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는 뜻이다.

2. 로마서 8:13의 "영"은 성령이다
3. 성령을 뺀 방법은 모두 소용없다
4. 성령은 자기 뜻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 **로마서 8:13**
> 죄를 죽이는 주체가 "영", 곧 성령임을 보여주는 강론 전체의 기초 본문
>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 2. 성령을 뺀 치료책은 헛되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

사람들은 성령 말고 다른 치료책을 찾지만 그것으로는 낫지 않는다. 오웬이 보기에 로마 가톨릭 신앙은 대부분 잘못된 죄 죽이기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약, 기도, 금식, 고행(몸을 괴롭혀 죄를 다스리려는 수행)이 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라는 명분 위에 서 있다. 오웬은 어떤 사람들의 해석도 소개한다. 요한계시록의 “무저갱의 황충”이 탁발 수도사(구걸하며 설교하던 수도회 수사)를 가리킨다는 해석이다. 이 수사들은 설교로 양심을 찔러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고치는 길은 가르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가책 속에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웬 자신의 주석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해석으로 소개된 것이다. 근본 문제는 무지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안의 죄를 죽이려 하고, “여분의 공로”를 쌓으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죄 죽이기에 독을 섞는 일인 줄 모른다. 더 심각한 것은 개신교인을 자처하는 이들까지 이 방법을 앞다투어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외적 노력, 몸의 훈련, 율법적 의무 수행만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부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신비를 모르는 데서 나온다. 오웬은 이런 현실에 대한 우려가 이 책을 출판한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힌다. 로마 가톨릭의 방법은 제7장에서 다시 다룬다.

2. 죄를 깨닫게만 하고 고치지 못하면 절망뿐이다
3. '여분의 공로' 사상은 죄 죽이기에 독을 섞는다
4. 개신교인도 같은 방법을 다시 따라 한다
5. 그리스도 없는 노력은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다

> **요한계시록 9:3**
> 일부 해석자가 탁발 수도사에 빗댄 “무저갱의 황충”
>
>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 **요한계시록 9:6**
> 죄만 깨닫고 치료는 못 받아 “죽기를 구하는” 상태를 묘사
>
>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 3. 실패의 첫째 이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수단

오웬은 교황주의자들(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죄 하나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이유를 든다. 첫째, 그들이 강요하는 수단 상당수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다. 거친 옷, 서약, 보속을 위한 고행(지은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려는 행위), 금욕 훈련, 수도 생활이 그렇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수단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웬의 원칙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날 어떤 이들이 고집하는 자기 학대식 방법도 여기에 해당한다.

1.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수단은 목적을 못 이룬다
2. 거친 옷·서약·보속 고행·수도 생활이 그 예다

이사야 1:12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종교 행위를 꾸짖는 말씀

>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태복음 15:9

사람이 만든 규칙으로 섬기는 것은 헛된 경배임을 증언

>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 4. 실패의 둘째 이유: 정하신 수단을 잘못 씀

둘째,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도 쓰지만 순서와 용도를 지키지 않는다. 기도, 금식, 철야, 묵상은 죄를 죽이는 데 분명 쓸모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일 뿐인데, 그들은 각각을 원천 자체로 여긴다. 이 수단들은 성령과 믿음 아래에서만 수단 노릇을 하는데, 그들은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면 죄가 저절로 죽는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늘 죄를 죽이려 애쓰지만 끝내 이르지 못한다. 옛 수도원의 열심 있는 사람들이 몸에 끔찍한 폭력을 가한 것도 이 잘못에서 나왔다. 그들은 부패한 옛 사람이 아니라 육신 자체를 죽였고, “사망의 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몸을 죽였다. 같은 성격의 방법은 오늘도 있다. 죄의식이 덮치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열기가 남아 있는 동안만 기도하고 자신을 살핀다. 열기가 식으면 죄는 다시 지배권을 되찾는다. 오웬의 비유는 이렇다. 신앙의 의무는 약한 영혼에게 힘을 주는 좋은 양식이지만, 병든 영혼을 고치는 약은 아니다. 땀 흘려 의무를 행한다고 병이 땀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죄 죽이기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하는 일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1. 기도·금식은 물줄기이지 원천이 아니다
2. 수단은 성령과 믿음 아래에서만 효과가 있다

4. 죄책감의 열기가 식으면 죄가 돌아온다
5. 의무는 양식이지 치료약이 아니다

> **디모데후서 3:7**
> 늘 애쓰지만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
>
>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 **로마서 7:24**
> 오웬이 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의 출처. 죽여야 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 부패한 본성
>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의 의무들은 … 병든 영혼을 고쳐주는 치료약이 되지는 않는다."

📜 5. 죄 죽이기가 성령의 일인 근거

오웬은 두 가지 근거를 든다. 첫째,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죄 죽이기는 결국 돌 같은 마음, 곧 완고하고 교만하며 반역하고 믿지 않는 마음을 없애는 일이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어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한다.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다. 둘째, 죄를 죽이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꼭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 온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회개를 주시려고 높임을 받으셨고, 죄 죽이기는 회개의 핵심 부분이다.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시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보내 주신다. 오웬은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을 빌려,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하여 일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정리한다.

1. 죄 죽이기는 돌 같은 마음을 없애는 일이다
2.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성령을 약속하셨다

4. 죄 죽이기는 회개의 핵심 부분이다

5.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일하신다

에스겔 11:19

새 영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는 약속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26

같은 약속의 반복.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심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사야 57:17-18

다른 수단이 실패한 뒤에도 하나님이 친히 고치시겠다는 약속

17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18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요한복음 15:5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원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도행전 5:31

그리스도가 회개를 주시려고 높아지셨다는 증언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높아진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 6. 성령은 어떻게 죄를 죽이시는가: 세 가지 방식

첫째, 성령은 마음을 육체의 열매와 정반대인 은혜의 열매로 가득 채워서 죄를 죽이신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19~21절)과 성령의 열매(22~23절)를 맞세운다.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데 육체의 열매가 동시에 넘칠 수는 없다. 두 가지가 서로 거스르기 때문이다(1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24절). 그 길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25절). 이것이 디도서가 말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은혜가 자라 꽃피면, 그 은혜가 숨어 있는 죄와 활동하는 죄를 대적하고 무너뜨린다. 둘째, 성령은 죄의 뿌리와 습관에 실제로 힘을 가해 약하게 하고 부수고 없애신다. 이사야는 성령을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이라 부른다. 성령은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하시며, 정욕의 뿌리까지 태우는 불이시다. 셋째, 성령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끌어들이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셋째 방식은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1. 은혜를 채워 죄의 자리를 빼앗으신다
2.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공존 못 한다
3. 죄의 뿌리와 습관을 직접 태우신다
4.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신다
5. 믿음으로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19-23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정반대임을 보여주는 대조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17

두 가지가 서로 거스르므로 동시에 강할 수 없다는 근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24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25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그 길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디도서 3:5

이 일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부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사야 4:4

정욕을 태워 없애는 “소멸하는 영”으로서의 성령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성령은 죄악된 욕망의 뿌리까지 태워 없애는 불이시다."

📜 7. 성령이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고 하는가

예상되는 반론은 이렇다. 성령만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전부 성령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가? 오웬은 두 가지로 답한다. 첫째, 우리 안의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의 일이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행하고, 믿고, 기도하라고 명령한다. 죄 죽이기도 다르지 않다. 둘째, 성령은 우리의 순종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자유와 자발적 순종을 해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성, 의지, 양심, 감정이 각자의 본성에 맞게 움직이도록 그 안에서 일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거슬러서나 우리를 빼고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은 그 일을 할 힘을 주는 것이지 게으를 핑계가 아니다.

1. 모든 선한 일이 성령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명령된다
2. 성령은 우리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신다
3. 이성·의지·양심·감정을 통해 일하신다
4.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5. 성령의 도우심은 게으를 핑계가 아니다

> **빌립보서 2:13**
> 하나님이 소원과 행함을 주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원하고 행한다
>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 **이사야 26:12**
>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11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골로새서 2:12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음을 보충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26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스가랴 12:10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신다는 약속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오웬은 이 대목에서 목회자로서 탄식한다. 죄를 깨달았지만 죄책감을 견딜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온갖 방법과 의무에 매달리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르기 때문에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영혼은 싸워야 한다는 압박은 받지만 싸울 힘이 없다. 그들은 율법에 쫓기고 죄에 얻어맞는다. 때로는 이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자기가 일으킨 먼지 때문에 죄가 안 보였을 뿐이다. 두려움과 슬픔 같은 감정이 가라앉은 것을 승리로 착각한 것이다. 상황이 돌아오면, 죽었다고 생각한 정욕이 상처 하나 없이 다시 나타난다. 그들은 떡이 아닌 것을 위해 힘을 쓰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비참하다면, 이 싸움 자체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겠는가? 그들은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사랑하고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에는 끝이 없으니 결코 만족할 수 없다.

1. 성령 없는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2. 율법에 쫓기고 죄에 얻어맞는다
3. 감정이 가라앉은 것을 승리로 착각한다
4. 죽었다던 정욕이 멀쩡히 돌아온다
5. 싸움을 멸시하는 자는 더 비참하다

> **이사야 55:2**
> 오웬이 장절 표시 없이 빌려 쓴 “떡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함”. 헛된 노력을 묘사
>
>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 **로마서 8:13**
> 성령으로 죽이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는 강론의 기초가 이 탄식의 배경
>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mortification):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의 죄의 힘과 뿌리를 계속 약하게 하고 없애 가는 일.

주권적 원인: 어떤 일을 실제로 일으키고 주도하는 결정적 원인. 이 장에서는 성령을 가리킨다.

여분의 공로: 구원에 필요한 것보다 더 쌓은 선행이 공로로 남는다는 로마 가톨릭 개념. 오웬은 교만한 이름이라고 비판한다.

보속(補贖): 지은 죄의 값을 고행이나 선행으로 스스로 갚으려는 행위.

탁발 수도사: 재산 없이 구걸하며 설교하던 중세 수도회의 수사.

돌 같은 마음: 완고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굳은 마음.

정욕(lust)·죄악된 욕망: 하나님 뜻을 거슬러 무언가를 끈질기게 원하는 내 안의 죄의 성향.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신자 안에 아직 남아 있으면서 숨어 있거나 활동하는 죄의 세력.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은혜를 자라게 해 사람 안을 새것으로 바꿔 가시는 일.

율법적 의무 수행: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힘으로만 죄를 이기려는 태도.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죄를 죽이는 결정적 원인은 오직 성령이다(로마서 8:13).
- 고행, 서약, 의무 수행 자체는 성령 없이는 몸을 괴롭힐 뿐 죄를 죽이지 못한다.
-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을 없애려고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는 성령으로 온다.
- 성령은 은혜를 채우고, 죄의 뿌리를 태우고,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여 죄를 죽이신다.
- 성령은 우리를 빼고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기대어 순종해야 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3편 · 결심과 금식으로는 왜 안 될까 ·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인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